

충남도,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서해안 '신관광벨트' 가속화



충남 보령 신항동에서 원산도까지 6,927m 길이의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충남 보령시 신항동과 원산도를 잇는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6,927m)이 12월 1일 문을 연다.

도는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 등 6개 사업에 8조4천579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1월 15일 원산도 쪽 해저터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안전관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보령과 태안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중부권·전라권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도내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서해안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나선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보령해저터널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인근 도서 지역 등 서해안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해 충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체험과 소비 중심의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2025년 섬 국제 비엔날레와 같은 해양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해 안면도 관광지와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해저터널 개통과 맞물려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된 태안~서산 고속도로를 ‘제6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해 사업 추진을 가시화한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국도 77호선 고남~창기 구간 4차로 확장과 원정교차로 개선 등 조기 완공을 위해 행정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충남 서산공항과 대산항 국제 여객선을 통해 입체 교통망도 완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산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도로·마을하수도를 정비하고, 공용주차장·화장실·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한다.

터널 내 안전을 위해 양방향에 인명구조차를 배치하고, 상시 소방 훈련도 할 예정이다.

보령해저터널에는 현재 옥내소화전이 50m 간격으로 301개가 배치됐고, CCTV 카메라도 92개를 설치했다. 비상시 반대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는 사람용 21개, 660m 간격으로 차량용 10개가 만들어졌다. ⑦